

# 『사기』의 열수·열구와 『한서』의 열수·열구 고찰

문학박사(한국고대사) 김 중 서

역사모(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www.yeoksamo.com](http://www.yeoksamo.com)

## I. 머리말

한국 고대사학계의 주류학자들은 고조선과 한사군을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해왔고, 이들의 주장을 따라서 초등·중·고등·대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각급 시험에서도 그렇게 써야만 정답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교육은 고조선과 한사군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인 학자·관리들이 남긴 역사지리 기록을 철저히 배척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크게 반(反)는 반역사적 역사교육, 사이비 역사교육, 가짜 역사교육, 유사 역사 교육이다.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전국시대 중기까지 조선과 중국의 국경선 이었던 요수(遼水)의 위치, 전국시대 중기 이후부터 위만조선의 멸망시까지의 조선과 중국의 국경선이었던 패수의 위치, 낙랑군 내부를 흐르던 패수의 위치, 한(漢)나라의 조선 침략전쟁에 등장한 열구(洌口)의 위치, 낙랑군 내부에 있던 열구(列口)와 열수(列水)의 위치, 연(燕)·진(秦) 장성의 동쪽 끝의 위치, 산융(山戎)·동호(東胡)의 위치, 진개(秦開)의 조선 땅 2,000리 침탈 기록의 진위, 부여·예·맥·옥저의 위치, 고구려 영토 위치, 흑룡강·요하문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말갈·여진족과 고대 한국인과의 관계 등이다.

고조선·중조선·후조선<sup>1)</sup> 요수, 패수, 열수, 낙랑군·임둔군·진번군·현도군의 한사군(漢四郡), 낙랑군·현도군의 한이군(漢二郡), 낙랑군·대방군·현도군의 한삼군(漢三郡) 위치에 대한 중국 측 기록으로는 『사기』로부터 『대청일통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지리 기록들이 있다. 한국 측 기록으로도 『삼국사기』로부터 『아방강역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기록들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 위치에 대한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이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인 학자·관리들이 남긴 역사지리 기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왔다.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이 각각 멸망·소멸한 이후를 살던 학자·관리들이 남긴 기록은 그 기록자가 가진 역사지리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혼입되어 역사적 사실·실재한 위치에 반하는 기록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필자는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이 각각 멸망·소멸한 이후를 살던 학자·관리들이 남긴 기록은 철저히 배척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신시·단군조선사 연구』 『단군조선 영토 연구』 『기자·위만조선 연구』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부여·고구려·백제사 연구』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9권, 『교과서 바로잡기 1000장면』 1~2권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 열구·열수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II. 열구와 열수의 실제 위치

### 1. 사마천이 직접 보고 들은 열구와 열수 위치

1) 준왕의 조선과 위만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보다 고대에 있던 조선이라는 뜻으로 고조선이라고 불려온 단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고조선으로 가르쳐온 일본식민지교육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기자조선, 준왕의 조선, 위만조선을 모두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관계로, 1세 단군 왕검이 건국한 본래의 고조선과 기자조선, 준왕의 조선, 위만조선을 혼동하기 쉽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필자는 ‘고조선(古朝鮮)’은 1세 단군 왕검이 건국한 ‘조선’만을 칭하는 것으로 하고 고조선과 단군조선(왕검조선)을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또 기자조선은 그대로 기자조선으로, 준왕 때에 위만에게 멸망당한 조선은 ‘중조선(中朝鮮)’ 또는 준왕의 조선, 위만이 건국한 조선은 위만조선 또는 ‘후조선(後朝鮮)’으로 표기하도록 한다.(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권, 한국학연구원, 2014, 41~42쪽.)

고조선·중조선·후조선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중에 ‘열수(洌水)’ 혹은 ‘열수(列水)’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다만 『사기』 「조선열전」의 “누선장군 또한 ‘열구(洌口)’에 이르렀을 때, 군사를 머물러서 마땅히 좌장군의 군사를 기다려야 했는데, 제 마음대로 먼저 공격함으로서 많은 군사를 잃었다.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야 했으나 속죄의 재물을 바치고 서인이 되었다.”<sup>2)</sup> 라는 기록<sup>3)</sup> 중의 ‘열구(洌口)’라는 지명이 유일하다.

『사기』 「조선열전」에 단 한번 기록된 ‘맑을 열(洌)’자와 ‘입 구(口)’자를 사용하는 ‘열구(洌口)’라는 지명이 ‘맑을 열(洌)’자를 사용하는 ‘열수(洌水)’ 혹은 ‘열하(洌河)’라는 강을 가리킨다는 증거도 없고, ‘열수(洌水)’ 혹은 ‘열하(洌河)’라는 강의 하구(河口)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다만 송(宋, 서기 420 ~ 478년)나라 사람인 배인(裴駰)이 편찬한 『사기집해』의 “조선열전제55”에 ‘장안(張晏)이 말하기를 조선에 습수(濕水), 열수(洌水), 선수(汕水)가 있는데 이 세 강이 합하여 열수(洌水)가 되었다. 낙랑(樂浪), 조선(朝鮮)의 이름이 이 강 이름에서 취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sup>4)</sup>라고 한 기록에서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수(洌水)’라는 강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장안(張晏)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안사고(顔師古, 서기 581 ~ 645년)가 편찬한 『한서서례』에 “장안(張晏)의 자(字)는 자박(子博)이고 중산(中山) 사람이다”<sup>5)</sup> 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백도백과』에 장안이 후한(後漢, 서기 25 ~ 220년)말, 삼국시대(서기 220 ~ 280년) 초기 사람이라는 정도의 정보가 있을 뿐이다.<sup>6)</sup>

장안이 서기 220년 전후에 활동한 인물이라면, 약 328년 이전인 서기전 108년에 멸망한 ‘조선(朝鮮)’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긴 유래를 알았을 리 없고, 조선에 있던 강 이름을 알았을 리도 없다. 때문에 낙랑(樂浪), 조선(朝鮮)의 이름이 이 강 이름에서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의심할 의(疑)’자를 사용한 것이다. 장안이 ‘조선에 습수(濕水), 열수(洌水), 선수(汕水)가 있는데 이 세 강이 합하여 열수(洌水)가 되었다.’고 한 말은 조선 멸망 후 그 땅에 설치된 낙랑군, 현도군, 요동군 등을

2) 『史記』 卷一百十五「朝鮮列傳」, “樓船將軍亦坐兵至洌口 [索隱 蘇林曰 洌口 縣名也 度海先得之] 當待左將軍 擅先縱 失亡多 當誅 贖爲庶人”

3)

4) 『史記集解』 卷一百十五「史記一百十五」, “朝鮮列傳第五十五 [張晏曰 朝鮮有濕水 洌水 汕水 三水合爲洌水 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

5) 顔師古, 『漢書敘例』 “張晏字子博中山人”

6) <http://www.baidu.com/>

흐르던 강을 보고 추측해낸 말일 뿐이다.

따라서 장안이 말한 습수(濕水), 열수(洌水), 선수(汕水) 등으로 조선의 위치, 열수의 위치, 습수의 위치, 선수의 위치, 낙랑과 조선의 이름 유래 등을 탐구하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기』 「조선열전」에 단 한번 기록된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구(洌口)’의 ‘열(洌)’자가 ‘맑을 열(洌)’자를 강 이름으로 한 ‘열수(洌水)’ 혹은 ‘열하(洌河)’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구(洌口)’가 ‘열수(洌水)’ 혹은 ‘열하(洌河)’라는 강의 하구(河口)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다만 『사기』 「오왕비열전」의 “조후(條侯) …… 장군은 해자를 깊게 파고 성채를 높이 쌓고, 가벼운 무장을 한 병사들을 보내어 회수(淮水)와 사수(泗水) 하구를 막아 오(吳)의 양식 운반도로를 끊으십시오.”<sup>7)</sup> 라는 기록에서 회수(淮水)와 사수(泗水) 하구라는 의미로 ‘강 이름 회(淮)’ ‘물 이름 사(泗)’ 뒤에 ‘입 구(口)’자를 붙여 ‘회사구(淮

7) 『史記』 卷一百六 「吳王濞列傳」, “條侯 …… 將軍深溝高壘 使輕兵絕淮泗口塞吳饑道”

泗口)’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열수(洌水)’ 혹은 ‘열하(洌河)’의 하구라는 의미로 ‘열구(洌口)’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지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구(洌口)’가 곧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수(洌水)’나 ‘열하(洌河)’의 하구(河口)를 가리키는 것이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구(洌口)’가 곧 ‘열수(洌水)’나 ‘열하(洌河)’의 하구(河口)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열수(洌水)’ 혹은 ‘열하(洌河)’라는 강을 찾으려면 ‘맑을 열(洌)’ 혹은 ‘차가운 열(洌)’의 의미를 따라서 ‘맑은 강’, 혹은 ‘차가운 강’의 의미를 가진 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 이름의 의미만 가지고 많은 강들 중에 어느 강이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수(洌水)’ 혹은 ‘열하(洌河)’인지 알 수 없다.

구태여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수(洌水)’ 혹은 ‘열하(洌河)’를 찾아보겠다면 『사기』 「조선열전」의 ‘누선장군 양복의 수군이 패수를 격파하고 진군해 오는 좌장군의 육군을 열구(洌口)에서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왕험성을 공격하여 패했다는 죄목으로 속죄의 재물을 바치고 서인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열구(洌口)’는 한(漢)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인 패수(溍水)로 추정할 수 있는 란하 하류, 대포하(大蒲河), 양하(洋河), 석하(石河), 구하(狗河), 육고하(六股河), 여아하(女兒河), 소릉하(小凌河), 대릉하(大凌河) 등 중에서 패수로 확정할 수 있는 강의 동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해보려는 의미 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 2. 반고가 본 ‘열구’와 열수의 위치

『한서』 「서남이양월조선전」에 “누선장군 또한 ‘열구(洌口)’에 이르렀을 때, 군사를 머물러서 마땅히 좌장군의 군사를 기다려야 했는데, 제 마음대로 먼저 공격함으로서 많은 군사를 잃었다.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야 했으나 속죄의 재물을 바치고 서인이 되었다.”<sup>8)</sup> 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단 하나 다른 점은 『한서』 「서남이양월조선전」에는 『사기』 「조선열전」 ‘열구(洌口)’의 ‘맑을 열(洌)’자를 ‘벌일 열(列)’자로 바꾼 ‘열구(列口)’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8) 『漢書』卷九十五「西南夷兩粵朝鮮傳」〈朝鮮〉, “樓船將軍亦坐兵至列口 當待左將軍 [蘇林曰 列口 縣名也 度海先得之] 擅先縱 失亡多 當誅 贖爲庶人”

먼저 『한서』 「조선전」은 왜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서 ‘열구(洌口)’를 ‘열구(列口)’로 바꾼 행태와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한(漢)나라와 조선의 전쟁을 지켜본 사마천이 남긴 『사기』의 ‘맑을 열(洌)’자의 ‘열구(洌口)’를 ‘별일 열(列)’자의 ‘열구(列口)’ 고쳐 쓴 이유는 『한서』의 공동 편찬자인 반고나 그의 아버지인 반표(班彪), 그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가 『한서』 「서남이양월조선전」의 ‘조선’편을 쓸 때, 조선의 옛 땅인 낙랑군에 ‘별일 열(列)’자를 사용한 ‘열구(列口)’라는 현이 있는 것을 보고, 열구현(列口縣)이 곧 『사기』 「조선열전」의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구(洌口)’라고 판단하고 ‘열구(列口)’가 맞는 지명이라고 생각하고 ‘별일 열(列)’자를 사용한 ‘열구(列口)’라고 고쳐 쓴 것이다.

그러나 『사기』의 ‘열구(洌口)’를 임의로 ‘열구(列口)’ 고쳐 쓴 행태는 옳지 않다. 사마천이 지켜본 한(漢)나라와 조선의 전쟁에 나타난 중요 전략 지점인 ‘열구(洌口)’라는 지명이 존재할 때로부터 『한서』 「서남이양월조선전」가 편찬될 때까지는 약 200년 내외의 시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선의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구(洌口)’와 낙랑군의 ‘별일 열(列)’자를 사용한 ‘열구(列口)’가 동일한 지명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이나 고증 없이 『사기』의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구(洌口)’를 임의로 ‘별일 열(列)’자를 사용한 ‘열구(列口)’로 고쳐 쓴 행태는 역사 왜곡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표, 반고, 반소가 ① 『한서』 「서남이양월조선전」 조선편의 ‘별일 열(列)’자를 사용한 ‘열구(列口)’에 아무런 주석도 달지 않은 점, ②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의 ‘열구(列口)’에 ‘열수(列水)가 ‘열구(列口)’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주석을 달지 않은 점, ③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의 ‘탄열(吞列)’에 열수가 분려산에서 나와서 점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주석을 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한서』를 쓴 반표, 반고, 반소 등은 『사기』 「조선열전」의 ‘열구(洌口)’나 『한서』 「지리지」 낙랑군의 ‘열구(列口)’가 열수(列水)의 하구(河口)였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열수(列水)는 『사기』 「조선열전」 ‘열구(洌口)’나 『한서』 「지리지」의 ‘열구현(列口縣)’을 지나가는 강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의 ‘별일 열(列)’자를 사용한 열수(列水)와 『사기』 「조선열전」의 ‘맑을 열(洌)’자를 사용한 열구(洌口)를 연결하고, 『한서』 「지리지」의 ‘별일 열(列)’자를 사용한 ‘열구(列口)’를 연결시켜온 그동안의 연구, 고증, 주장은 사족(蛇足)을 그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역사왜곡에 일익을 담당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에는 ‘열수(列水)’가 어디에 있던 어떠한 강인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필자 이전에는 아무도 그러한 단서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한중고대사를 연구해온 역사학자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 3. 열수의 길이로 본 열수의 실제 위치

‘열수(列水)’가 어디에 있던 어떠한 강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의, “열구현(列口縣) …… 탄열현(吞列縣) [분려산에서 열수(列水)가 나온다. (열수는) 서쪽으로 흘러서 점선현(黏蟬縣)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820리를 흘러간다. 즉 길이가 820리이다.] ”<sup>9)</sup> 라는 기록이다.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에 ‘열수(列水)가 분려산(分黎山)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서 점선현(혹은 점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강의 길이가 820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황하로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강들 중에 서쪽 혹은 서남쪽으로 흘러서 820리를 가는 강을 찾으면 그 강이 바로 낙랑군을 흐르는 열수(列水)일 것이다. 현대의 길이 단위는 한대의 길이 단위와 다르다. 때문에 한나라 때의 820리가 현대의 거리 측정 단위인 km 단위로 몇 km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필자는 중국의 요순(堯舜)시대로부터 당대(唐代)까지의 거리 측정 기록, 도량형에 대한 규정, 도량형 유물을 연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한 바 있다. 한(漢)나라 때의 1척(尺)의 길이는 약 23.419cm이었고, 1척의 10분의 1인 1촌(寸)의 길이는 약 2.34cm이었으며, 1척의 100분의 1인 1분(分)의 길이는 약 0.234cm이었고, 1척의 10배인 1장(丈)의 길이는 2.34m이었으며, 1척의 100배인 1인(引)의 길이는 23.4m이었고, 1보(步)의 길이는 6척(尺)으로 약 140.51cm이었으며, 1리(里)는 300보로 약 0.4215km 이었다. 그러나 당(唐)나라 때는 1척의 길이는 약 30cm(29.99cm)이었고, 1보의 길이는 5척으로 약 150cm(149.95cm)이었으며, 1리는 360보로 약 0.54km이었다.<sup>10)</sup>

따라서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을 흐르던 ‘열수(列水)’의 길이 820리에 한나라

9) 『漢書』卷二十八下「地理志」樂浪郡, “列口 …… 吞列 [分黎山列水所出西至黏蟬入海行八百二十里]

10)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권(가짜 낙랑 유물과 수학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 149~170쪽.

때의 1리 길이인 0.4215km를 곱해주면 345.63km가 된다. 이 345.63km가 낙랑군을 흐르던 열수 길이를 km 단위로 환산한 길이이다.

한반도에 있는 강들 중에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의 ‘열수(列水)’로 볼 수 있는 강 즉, 서쪽(혹은 서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강은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등이 있다. 이 중에 한국고대사학계의 주류학설인 ‘고조선·한사군 재한반도설’ 논자들이 열수로 주장하고 가르쳐온 대동강의 길이는 438km로서<sup>11)</sup> 한나라 때의 길이로는 1,039.15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27%, 219.15리나 더 길다. 예성강의 길이는 174km로서<sup>12)</sup> 한나라 때의 길이로는 412.81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50%, 407.19리가 더 짧다. 임진강의 길이는 254km로서<sup>13)</sup> 한나라 때의 길이로는 602.6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27%, 217.39리가 더 짧다. 한강의 길이는 514km로서<sup>14)</sup> 한나라 때의 길이로는 1,219.45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49%, 399.45리나 더 길다. 금강의 길이는 401km로서<sup>15)</sup> 한나라 때의 길이로는 951.36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16%, 131.36리나 더 길다. 청천강의 길이는 199km로서<sup>16)</sup> 한나라 때의 길이로는 472.12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42%, 347.88리가 더 짧다. 압록강의 길이는 790km로<sup>17)</sup> 한나라 때의 길이로는 1,874.26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129%, 1,054.26리나 더 길다. 따라서 『한서』 「지리지」의 열수 길이로 보았을 때, 한반도에 있는 강들 중에는 한나라 때의 길이 단위로 820리(약 345.63km)의 길이를 가진 강도 없고, 820리(약 345.63km)의 길이와 유사한 길이를 가진 강도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낙랑군 탄열현에서 발원하여 점선현을 경유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열수가 있을 수 없고, 열수가 흐르는 낙랑군도 있을 수 없다. 물론 중조선, 후조선도 한반도에 있을 수 없다.<sup>18)</sup>

황하 하류 북쪽으로 부터 압록강 사이에 있는 강들 중에서 강의 일부나 전부가 서쪽, 혹은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은 란하, 소릉하, 대릉하, 요양하 요하, 혼하, 태자하 밖에 없다. 란하(灤河)는 877km(公里)로서<sup>19)</sup> 한(漢)나라 때의 길이로는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26쪽.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79쪽.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80쪽.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58쪽.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0쪽.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78쪽.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84쪽.

18)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2권(중국 역사 기록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6.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청나라 도로와 고속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7.

19) 『Baidu百科』 877km <http://baike.baidu.com/item/%E6%BB%A6%E6%B2%B3>

2,080.66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154%, 1,260.66리나 더 길다. 소릉하(小凌河)는 206km로서<sup>20)</sup> 한대(漢代)의 길이로는 488.73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40%, 331.27리가 더 짧다. 대릉하(大凌河)는 397km로서<sup>21)</sup> 한대의 길이로는 941.87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15%, 121.87리나 더 길다. 요양하(繞陽河)는 290km로서<sup>22)</sup> 한대의 길이로는 688.02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16%, 131.98리가 더 짧다. 요하(遼河)는 1,345km로서<sup>23)</sup> 한대의 길이로는 3,190.98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289%, 2,370.398리나 더 길다. 혼하(渾河)는 415km로서<sup>24)</sup> 한대(漢代)의 길이로는 984.58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20%, 164.58리나 더 길다. 태자하(太子河)는 353.4km(公里)로서<sup>25)</sup> 한(漢)나라 때의 길이로는 838.43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2.2%, 18.43리가 더 길다.<sup>26)</sup>

따라서 강의 일부나 전부가 서쪽(혹은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들인 란하, 소릉하, 대릉하, 요양하 요하, 혼하, 태자하 중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820리(약 345.63km) 길이의 강인 열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강은 태자하(太子河) 밖에 없다. 한(漢)나라 때 대나무로 만든 23.4m 길이의 ‘인(引)’이라는 자를 가지고 강의 길이를 측정한 열수의 길이와 현대적 거리 측정 장비로 측정한 태자하의 길이의 차가 2.2%, 18.43리(약 7.7km) 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sup>27)</sup>

이로서 『한서』 「지리지」의 탄열현(吞列縣) 분려산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흘러서 점선현(黏蟬縣)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 820리 길이의 강인 ‘열수(列水)’가 태자하(太子河)라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다. 이 태자하 유역은 본래는 ‘진번국(眞番國) 영역이었다가 한 무제가 진번군을 설치하였고, 동이 제국(諸國) 및 제족(諸族)의 저항으로 한(漢) 소제(昭帝) 시원 5년인 서기전 82년에 진번군을 폐지하고<sup>28)</sup> 그 지역을 낙랑군에 편입시킨 지역이다. 따라서 이 태자하 유역과 천산산맥(千山山脈) 동·남쪽지역이 낙랑군의 남쪽 경계지역 일 것이다.<sup>29)</sup>

20)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item/%E5%B0%8F%E5%87%8C%E6%B2%B3>

21)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item/%E5%A4%A7%E5%87%8C%E6%B2%B3>

22)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item/%E7%BB%95%E9%98%B3%E6%B2%B3>

23)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item/%E8%BE%BD%E6%B2%B3/36176>

24)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item/%E6%B5%91%E6%B2%B3/3156>

25)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item/%E5%A4%AA%E5%AD%90%E6%B2%B3>

26)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청나라 도로와 고속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7.

27)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청나라 도로와 고속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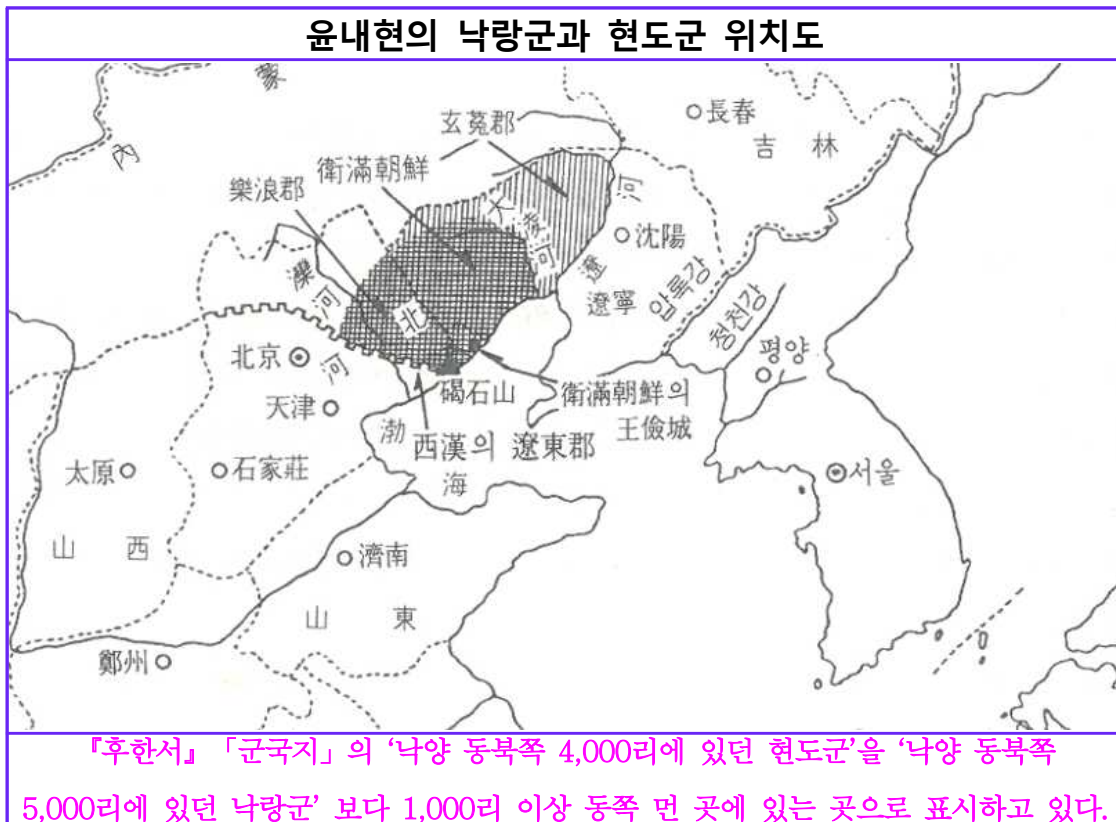
28) 『漢書』卷七「昭帝紀」, “始元…五年…罷儋耳眞番郡”

29)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9권(청나라 도로와 고속도로의 증언)』, 한국학연구원, 2017.

### Ⅲ. 열수와 열구에 대한 기존학설

#### 1. 윤내현의 열수 란하설, 패수 란하설, 패수 요수설

윤내현은 『사기』 「조선열전」의 패수, 『한서』 「지리지」 요동군 조의 沛水, 『한서』 「지리지」 낙랑군 조의 패수현의 패수, 『설문해자』의 낙랑군 누방현의 패수가 모두 지금의 란하(濛河) 유역에 있었다고 하였다.<sup>30)</sup> 뿐만 아니라 요수(遼水)도 란하(濛河)’라고 하였으며,<sup>31)</sup> 열수도 란하라고 하였다.<sup>32)</sup>



그러나 요수(遼水)는 전국 시대 중기 및 그 이전 시대의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선이었던 강으로 현재 북경·천진 서쪽을 흐르던 영정하(永定河)이었다. 전국시대 후기 연나라가 조선의 변국으로 요수의 동쪽에 있던 요동국을 빼앗아서 요동군, 요서군, 상곡

30)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219~221, 227~229, 394쪽.

31)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177~178, 183~184, 212, 223~227쪽.

32)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52~53, 81~83쪽.

군을 설치하였다. 때문에 중조선은 국경선을 동쪽으로 약 700리 이상 후퇴하여 패수로 경계를 삼았다. 그 국경선으로서의 패수가 만리장성 남쪽의 란하(灑河) 하류나 란하 하류의 동쪽에 있는 강들인 양하·석하·구하·육고하·여아하·소릉하 중의 하나였으며, 낙랑군 내부를 흐르던 패수는 소릉하·대릉하 중의 하나였고, 열수는 낙랑군 내부를 흐르던 강으로 현재 요녕성을 흐르는 태자하(太子河)였다.<sup>33)</sup>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 요수, 패수, 열수, 한사군(낙랑군·임둔군·진번군·현도군) 한이군(낙랑군·현도군), 한삼군(낙랑군·대방군·현도군) 및 요동군, 요서군, 요동속국, 우북평군, 어양군, 상곡군, 탁군, 대군 등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의 학자, 관리들인 남긴 기록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증명한 바 있다.<sup>34)</sup>

또한 필자는 ‘수학적 위치 고증 방법(①지도상의 단순거리 비교로 실재했던 위치를 고증하는 방법, ②옛 도로와 현대 도로를 비교하여 실재했던 위치를 고증하는 방법, ③도로굴곡지수와 수평직선거리를 이용하여 실재했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창안하여, 『후한서』 「군국지」의 ‘낙양 동북쪽에 1,800리에 탁군, 2,000리에 어양군과 광양군 치소, 2,300리에 우북평군, 3,260리에 요동속군, 3,300리에 요서군, 3,600리에 요동군, 4,000리에 현도군, 5,000리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기록의 실재했던 위치를 입증한 바 있다.<sup>35)</sup>

또한 『한서』 「지리지」의 현도군을 흐르던 2,100리의 염난수가 877km 길이의 란하이고, 현도군 고구려현의 요수는 란하 지류라는 것, 낙랑군 남부도위 관할 하에 있던 820리 길이의 열수는 태자하(太子河)라는 것 등을 증명한 바 있다.<sup>36)</sup>

윤내현이 이렇게 서로 다른 강들을 요수와 패수와 열수가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한 것은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 요수, 패수, 열수, 한사군(낙랑군·임둔군·진번군·현도

33)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9권, 한국학연구원.

34)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9권, 한국학연구원, 2014~2017.

金鍾序, 『단군조선 영토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기자·위만조선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35)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9권, 한국학연구원, 2014~2017.

金鍾序, 『단군조선 영토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36)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9권, 한국학연구원, 2014~2017.

金鍾序,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군) 한이군(낙랑군·현도군), 한삼군(낙랑군·대방군·현도군) 및 요동군, 요서군, 요동속국, 우북평군, 어양군, 상곡군, 탁군, 대군 등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의 학자, 관리들인 남긴 기록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지 않고 자신의 논지 전개에 필요한 기록만 인용하거나, 이들 국(國)·군(郡)들이 소멸한 이후의 기록을 논지 전개의 전거(典據),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본고(本稿)는 요수, 패수에 대한 논문이 아니고, 지면이 부족하므로 윤내현의 요수란하설, 패수란하설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기로 하고, 윤내현의 열수가 란하라는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고,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윤내현은 “위만조선이 낙랑군 조선현에서 건국되었고, 그 지역이 란하 유역이었음은 다음과 같은 기록들에서도 확인된다. 『사기집해』에 ‘장안(張晏)이 말하기를 조선에 습수(濕水)·열수(洌水)·선수(汕水)라는 강이 있는데 이 세 강이 합하여 열수(洌水)가 된다. 아마도 낙랑(樂浪)의 조선(朝鮮)은 이것으로부터 이름을 취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낙랑군 조선현이라는 명칭이 그곳에 있었던 강명으로부터 유래된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이 기록은 위만조선이 낙랑군 조선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그 지역에는 습수(濕水)·열수(洌水)·선수(汕水)라는 세 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그런데 습수(濕水)·열수(洌水)·선수(汕水)는 란하의 지류였다. …… 고대의 요동은 지금의 란하유역으로부터 遼西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것은 위만조선이 지금의 란하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최근에 하북성의 북재하(北載河)에서 기차 일족과 위만조선의 도읍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되었다. …… 고대에 그곳에 그렇게 큰 궁궐을 갖추고 있었을 정치세력은 기차 일족과 위만조선 밖에 없다. ……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에는 西漢의 양복의 군대가 바다로부터 위만조선의 궁궐에 쳐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명일통지』에는 ‘朝鮮城이 永平府 경내에 있으며, 기차가 봉해졌던 곳으로 전해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明시대의 영평부는 지금의 란하 하류유역이다. 이러한 기록들이 유적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 등은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한다.”라고 하였다.<sup>37)</sup>

이어서 윤내현은 “『사기』 「조선열전」에 의하면, 위만조선을 치기 위하여 西漢의 누선장군 양복이 해군을 거느리고 산동성을 출발하여 북쪽의 발해를 향해하였고, 좌장군 순체는 육군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출격하였다. 산동성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항해를 하면 란하 동부유역의 갈석산에 이르게 된다. …… 당시의 요동은 지금의 요동지역이 아니라 란하 유역이었다. 따라서 위만조선은 란하 동부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

37)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52~53, 81~83쪽.

다.”라고 하였다.<sup>38)</sup>

북재하(北載河)는 란하 하류에서 동쪽 가까운 바닷가에 있다. 때문에 윤내현 주장대로 란하가 열수이고 북재하가 왕험성이라면, 『사기』 「조선열전」의 누선장군 양복이 열구(列口)에서 좌장군의 군사를 기다리지 않고 패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야 했으나 속죄금을 물고 서인이 되었다는 기록과 배치된다. 윤내현 주장대로 라면 누선장군 양복이 기다릴 열구(列口)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내현은 이러한 모순점을 알았는지 『고조선연구』에서 ‘열구(列口)’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윤내현은 『대명일통지』에 ‘朝鮮城이 永平府 경내에 있고 기자가 봉해졌던 곳으로 전해온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란하 유역을 낙랑군 지역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조선성은 조선의 도읍인 왕험성에 있던 조선성이 아니라, 고구려가 대릉하·소릉하 유역의 낙랑군과 대릉하 상류·란하 중상류 유역의 현도군 영역을 수복하자, 낙랑군에 살던 중국인 일부가 중국으로 탈출하였고, 그 유민을 모아 살게 했기 때문에 생긴 성 이름이고, 지명이다. 즉 조선성은 교치(僑置), 교군(僑郡)의 증거이다.

또 윤내현은 고대의 요동은 란하유역이고, 위만조선이 그 란하 유역을 차지하였다고 하여, 요동군 지역을 위만조선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기』 「조선열전」에는 좌장군 순체가 요동을 나가 우거(조선)를 쳤다고 하였고, 좌장군의 졸정 다(多加) 요동병을 거느리고 선봉으로 나갔다가 패해서 돌아오자 군법에 따라 참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요동군은 한(漢)나라 영토이지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다. 윤내현은 이런 문제점을 알았던 때문인지 『고조선연구』에서 ‘졸정 다(多加) 요동병을 거느리고 선봉으로 나갔다가 패해서 돌아오자 군법에 따라 참하였다’는 기록을 소개하지 않았고, 좌장군 순체가 요동으로 나아갔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선장군 양복이 해군을 거느리고 ‘(산동성을) 출발하였다’고 하고, 좌장군 순체는 ‘(요동으로) 나아갔다’고 하여 서로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한서』 「지리지」에 열수가 서쪽으로 흘러 820리를 간다고 하였는데, 란하는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이므로 란하는 열수가 될 수 없다. 또한 란하는 현도군을 흐르는 2,100리 길이의 염난수(鹽難水)였다. 뿐만 아니라 『후한서』 「군국지」에 요동군은 낙양 동북쪽 3,600리에 있었고, 현도군은 낙양 동북쪽 4,000리에 있었으며, 낙랑군은 낙양 동북쪽 5,000리에 있었다. 따라서 요동군 동쪽·북쪽 경계는 현도군과 마주하였고, 낙랑군은 요동의 동쪽 1,000리에 있었

38) 윤내현,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414쪽.

다. 따라서 란하는 낙랑군 내부를 흐르는 열수가 될 수 없다.

## 2. 이마니시 류(금서룡)와 이병도의 열수 대동강설

이병도는 “중국의 가장 오랜 지리서인 『산해경』의 「해내북경」조에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동진의 곽박(郭璞)이 여기에 주(註)를 달기를 ‘朝鮮 今樂浪縣 …… 列亦水名也 今在帶方 帶方有列口縣’이라고 하였다. 郭氏의 주를 기다릴 것도 없이 列陽은 列口와 한 가지, 列水(今 大同江)와 관계있는 지명으로 列口가 列水の 河口의 뜻임에 대하여 列陽은 列陽은 열수의 北이란 뜻으로 명명된 것이다. 대개 山北・水南을 陰, 水北・山南을 陽이라하는 까닭이다. 列水가 지금의 大同江임은 既知의 사실이니<sup>39)</sup> 곽씨가 열수를 ‘今在帶方’이라고 한 것은, 열 수의 하류 일부가 당시의 대방 경내인 지금의 황해도 서북계를 흐르고 있던 때문이다. 나는 列口를 대동강 하류지역인 황해도의 은율(殷栗)에 비정하고, 열양은 대동강 북쪽 — 특히 지금의 평양 大城山下에 비정하고 싶다. …… 곽박의 『산해경주』에 ‘朝鮮 今樂浪郡’이라고 한 것은 列陽 以東의 朝鮮(침략후)의 중심지(首府)가 곽씨 당시에 낙랑군의 首縣(朝鮮縣)이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낙랑군의 수현인 朝鮮縣治가 前日 발견된 유물유적에 의하여 지금 평양의 對岸인 大同郡 大同江面 土城里 방면이 틀림없다고 알려지고 있거니와, 특히 이곳을 朝鮮 郡治로 삼은 것도 본시 이곳이 韓氏朝鮮 말기의 수도이었음에 연유된 지도 모르겠다. 좌우간 당시 朝鮮은 列陽의 동쪽 — 즉 列水 이남에 位置하여, …… 이 때 proper 조선의 강역은 大同江 이남 慈悲嶺 이북에 국한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불과 하였던 모양이다. …… 『산해경』에 조선의 위치와 강역을 말하는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이라한 …… 海北은 진번의 南海인 지금의 경기만으로부터의 이북의 地, 山南은 대동강 상류 域에 있는 묘향산맥으로부터 이남의 地로 보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0)</sup> …… 水路로는 누선장군 양복으로 하여금 군사 5만명을 거느리고 지금 산동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국도 王險城(平壤)을 향하여 列口(대동강 입구)로 쳐들어오게 하고, …… 누선장군(양복)은 당초에 열구(대동강)에서 마땅히 좌장군(순체)의 거느린 주력 부대가 국경선에 닥쳐올 때까지 기다려 병진하기로 …… 列口縣 …… 列口의 이름은 『史記』 「朝鮮傳」에, ‘樓船將軍 亦坐兵至列口 …… ’ 云云이라고 한데서

39) 今西龍, 「列水考」 『朝鮮支那文化の연구』

40) 이병도, 「淚水考」 『靑邱學叢』, 제13호.

보이고, 그아래 索隱 注에 ‘蘇林曰 列口 縣名也 度海先得之’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이 列水(大同江)의 河口 부근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단지 현명으로서의 ‘列口’는 후일 대방군의 속현 중에 들어있음을 보면, 河口의 南岸인 것이 틀림없다. 하구의 남안이면 지금 황해도 殷栗郡 부근에 해당 할 것이다.”<sup>41)</sup> 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병도의 주장은 ‘列水가 지금의 大同江임은 既知의 사실이니’<sup>42)</sup> 라고 하면서 금서룡(今西龍)의 「溟水考」를 주석으로 단 것에서 보듯이, 금서룡이 열수를 대동강이라고 한 주장을 따른 것이다.<sup>43)</sup> 당연히 고조선과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고조선·한사군 재한반도설’ 논자들은 모두 ‘열수 대동강설’을 따르고 있다.

이병도는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이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라고 한 말을 근거로 ‘열양(列陽)은 열수(列水)의 북쪽을 가리킨다.’고 한 후, 금서룡의 ‘열수가 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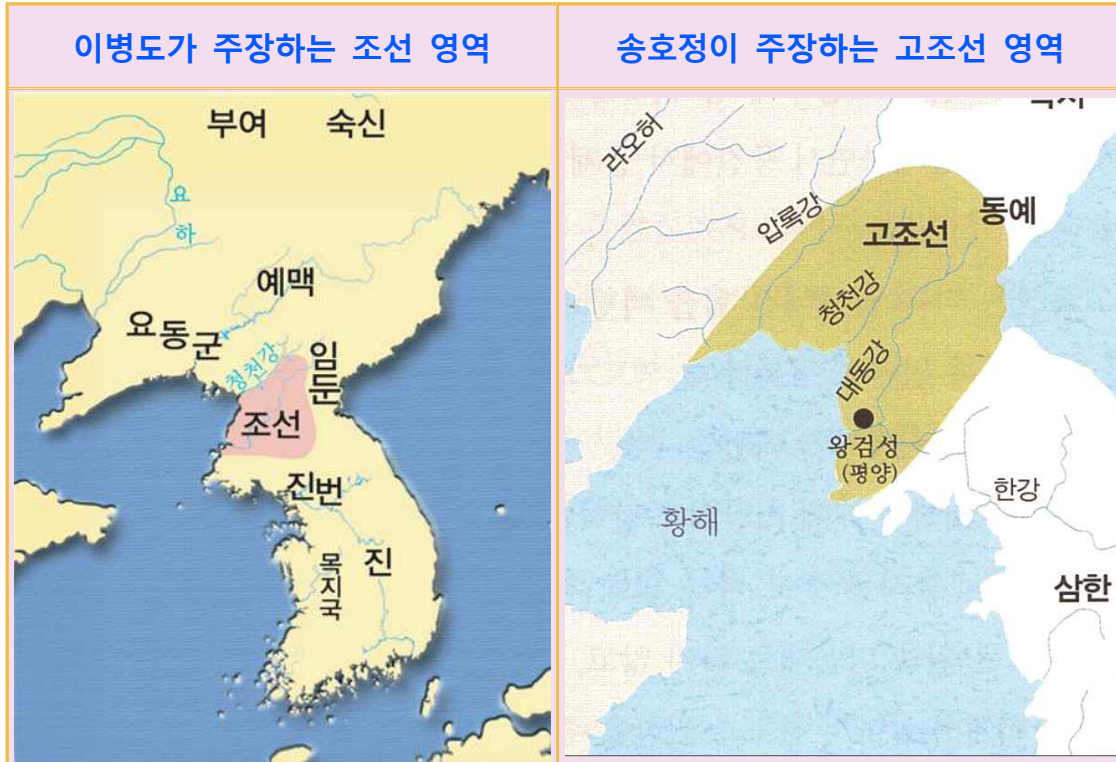
41) 이병도,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85, 72~73, 88, 126쪽.

42) 今西龍, 「列水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43) 今西龍, 「列水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京城帝國大學 法文學會 第二論纂 第一集, 1~41.

今西龍, 「列水考」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라고 한 주장'을 인용하면서 '열수가 패수'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면서 열양(列陽)을 대동강 북쪽 평양 대성산 아래로 비정하였다.



그렇다면 광박이 조선이 열양의 동쪽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열양을 대동강 북쪽 평양 대성산 아래라고 주장하였으니, 조선은 평양의 동쪽, 평양의 북북동쪽에서 평양의 동쪽으로 흘러오는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강동군·성천군·곡산군 등지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는 조선의 도읍을 평양 남·대동강 남쪽 대동군 대동강면 土城里를 朝鮮 郡治라고 주장하였다. 동서남북의 방향을 잘 모를 리는 없는데 동쪽을 남쪽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병도는 광박의 '조선(朝鮮)이 바다 북쪽에 있다(在 …… 海北).'는 말에 대하여 '바다 북쪽(海北)은 진번의 南海인 지금의 경기만 이북의 땅(地)라고 하였다. 그러나 광박은 조선이 바다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지 진번이 바다의 북쪽에 있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이병도는 『사기』 「조선열전」에서 '누선장군 양복이 제군(齊郡)에서 나아가서 발해(渤海)에 배를 띄워 왕험성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의 '발해(渤海)'를 임의대로 황해(黃海)라고 한 후, 열구(列口)를 대동강 하구, 열수를 대동강으로 주장하였다. 당

연히 한(漢)나라와 조선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기록한 사마천의 기록을 2,000년도 더 지난 후대 사람이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금서릉, 이병도를 비롯한 ‘고조선·한사군 재한반도설’ 주장·지지자들의 ‘열수가 대동강’이라는 주장과 인식은 『한서』 「지리지」의 ‘열수(列水)의 길이가 820리’라는 기록에 위배된다. 대동강의 길이는 438km로서<sup>44)</sup> 한나라 때의 길이로는 1,039.15리 이므로 열수의 길이보다 219.15리(27%)가 더 길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서』 「지리지」의 ‘열수(列水)’의 길이 820리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서』 「지리지」의 ‘열수(列水)’가 대동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26쪽.

‘열수(列水)’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한서』 「지리지」의 ‘열수(列水)’의 길이가 820리라는 기록을 못 본채하는 것은 역사학이 아니다.

이 밖에도 대동강이 열수가 아니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을 요약하고 이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 IV. 맺음말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논할 때는 반드시 ①고조선·중조선과 중국의 국경선 이었던 요수(遼水)의 위치, ②중조선 후기·후조선 멸망시까지의 중조선·후조선과 중국의 국경선이었던 패수의 위치, ③낙랑군의 패수 위치, ③한(漢)나라의 조선 침략 당시의 열구(洌口)의 위치, ④낙랑군의 열구현(列口縣)과 열수(列水) 위치, ⑤연(燕)·진(秦) 장성 동단의 위치, ⑥산융(山戎)·동호(東胡)의 실제 위치, ⑦연나라 장수 진개(秦開)의 조선 땅 2,000리 침탈 기록의 진위, ⑧부여·예·맥·옥저의 위치, ⑨현도군 염난수의 위치, ⑩현도군 고구려현의 요수의 위치, ⑪임둔군의 위치, ⑫진번군의 위치, ⑬고구려의 영토 위치, ⑭요동군·요서군·요동속국·우북평군·광평군·어양군·탁군·발해군 등의 중국 동북쪽 군국들의 위치, ⑮한국인과 말갈·여진족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던 당시를 살던 중국인 학자·관리들이 남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고조선·중조선·후조선 요수, 패수, 열수,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 등의 위치에 대한 중국 기록은 『사기』로부터 『대청일통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록들이 있다. 한국 기록은 『삼국사기』로부터 『아방강역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기록들이 있다. 그러나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의 위치에 대한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이 고조선, 중조선, 후조선, 한사군, 한이군, 한삼군이 실존할 당시를 살던 중국인 학자·관리들이 남긴 역사지리 기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각 나라들이 멸망한 이후를 살던 학자·관리들이 남긴 기록, 각 군국들이 소멸한 이후를 살던 학자·관리들이 남긴 기록은 대부분 역사지리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혼입되어 역사적 사실·실재한 위치에 반하는 기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①고조선의 역사와 위치를 알 수 있는 역사지리서는 『사기』 『관자』 『산해경』

『설원』 『전국책』 『회남자』 정도이고, ②고조선·후조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역사지리서는 『사기』 『한서』 『산해경』 『전국책』 『회남자』 『염철론』 정도이며, ③한사군·한이군·한삼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역사지리서는 『무릉서』 『한서』 『후한서』 『설문해자』 『수경』 『진서』 『태강지리지』 등에 불과하다.

사료가 이처럼 많지 않음에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필자 이전에 고조선과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해온 학자들이나 고조선과 한사군을 한반도 밖에서 찾은 학자들을 막론하고 위 기록들을 철저히 연구해본 학자가 없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찾고 싶은 것만 찾고 인용하고 싶은 것만 인용해 온 것이다.

필자가 고조선, 한사군 등이 실존할 당시에 기록된 이 얼마 되지 않는 중국의 역사지리 기록들을 철저히 연구 분석해본 결과 이 역사지리서들은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를 요하 서쪽, 발해 북쪽 지역으로 가르치고 있었을 뿐, 고조선과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기록은 없었다.<sup>45)</sup> 이러한 필자의 선행 연구는 열구는 열수와 관계없는 지명이고, 한(漢)나라 때의 길이로 820리, km 단위로 약345.63km 길이의 열수가 바로 353.4km 길이의 태자하(太子河)라는 연구결과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고의 연구는 필자가 한반도에 고조선, 낙랑군, 대방군이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되어 온 낙랑군 유물, 대방군 유물들을 철저히 연구 분석해본 결과 ①세칭 낙랑군·대방군 유물은 조작한 위조품이거나, ②평안도·황해도 지역이 중국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독립된 정치세력,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었는데 낙랑군·대방군의 한반도 실재설을 증명하는 유물로 왜곡되어 왔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 결과와<sup>46)</sup> 일치하는 것이다.

45)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1~9권, 한국학연구원, 2014~2017.

金鍾序, 『단군조선 영토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기자·위만조선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金鍾序,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

46)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제 위치를 찾아서』 6~8권, 한국학연구원, 2016~2017.

金鍾序, 『한사군의 실제 위치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5.

金鍾序,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5.